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서울 도심 뒤흔들다!

—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



지난 6월 22일 서울 도심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물결로 가득했다. 이번 대회는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이라는 우리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회였다. 6월, 정부가 호봉제 예산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부터 6월 22일 서울로 모이자는 결의를 다지면서 투쟁을 준비해갔다.

여성노조는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네거리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앞두고 노란 깃발과 분홍색 투쟁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속속 도착하여 자리를 잡았다. 여기저기 ‘호봉

제’와 ‘교육공무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와 선전물이 펼쳐졌다. 700여 명의 조합원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결의대회가 시작되었다.

이진숙 경남지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대회는 나지현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와 남윤인순 의원, 장하나 의원이 연대사를 이어갔다. 특히 두 의원 모두 민주통합당이 우선적 과제로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을 꼭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여 조합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투쟁 발언과 공연도 이어졌다. 대구 경북지부 조합원들은 민중가요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고, 전북지부 박소영 부지부는 학교비정규직이 당하는 차별과 절절한 요구를 토로한 목소리로 전했다. 큰 박수와 함께 조합원들이 직접 공모한 호봉제/공무직 삼행시 시상도 이어졌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삼행시를 같이 외치며 호봉제 쟁취의 결의도 다졌다.

결의문 낭독 후 대열을 갖추고 광화문에서 시청을 통과하여 숭례문, 서울역까지 도심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행진을 이어갔다.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부르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함께 모여 행진하는 동안 여성노동자, 학교의 주체인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자긍심도 쑥쑥 자라났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한데 모였다. 1만5천명이 함께 모여 집회를 가진 뒤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염원하며 거대한 공을 함께 굴리기도 했다.

여전히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대책에 늑장을 부리고 그 때문에 교육공무직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지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뜨거운 여름,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먹고 살만큼 올려라! 최저임금 5,910원 보장!

— 6월 26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최저임금 인상촉구 전국여성노동자결의대회 개최 —

여성노조 조합원 500여명은 6월 26일, 4시부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2014년 최저임금 5,910원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나지현 여성노조위원장 대회사,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부장,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스캣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연대사로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최저임금오구일공 4행시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수상과 함께 즐겁게 4행시를 외쳤다. 무엇보다 대구경북지부 조합원, 인천지부 조합원, 서울지부 조합원들의 최저임금 사수를 위한 공연으로 순간순간 그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날 분회장단은 준비해온 결의문을 낭독하며 저임금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해 참석한 조합원들의 지지의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 조합원들과 학생들의 풍물공연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 경기 | 경기교육청 교육실무직원 매년 경력인정 수당 지급 쟁취



경기지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1일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주경예산을 한 톨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31일간 교육청에 천막농성을 하며 각종수당과 호봉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기준은 2년에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매년 7,000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고 산정횟수도 기준은 3월을 기준으로 하여 4월 이후 입사자들은 많게는 11개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산정횟수를 3월과 9월 연 2회 산정하여 부당한 부분을 일부 해소하였다.

올해 교육청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우선으로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기로 노조와 합의를 하였다. 물론 장기근속수당이 적기는 하지만 매년 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는 호봉제에 한걸음 나아간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힘찬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이다.

| 전북 | 단체협약 잠정합의/ 7월 8일 조인식 예정



거의 1년여 동안 힘들게 달려온 단체교섭이 드디어 막을 내린다. 지난 4월에 단체교섭 공문발송을 시작으로 단협에 응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고 학교, 지역을 일일이 방문하여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단체교섭 교육을 했다. 학교비정규직 역사상 첫 파업을 진행하여 학교비정규직을 위해 10년을 넘게 활동한 여성노조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던 교섭을 막판에는 실무교섭과 직종요구 교섭을 포함하여 교섭을 진행한 끝에 6월 27일 잠정합의를 이루어내고 이제는 조인식만 남았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시간 : 학교근무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적용.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병가 : 연 60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연차를 공제하지 않음. 유급 휴일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유급휴일로 정함. 육아 휴직 : 2년 이내이며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만8세까지 적용. 단체협약 적용 : 조합원에게 적용 / 조합원교육 : 학기별 4시간(유급) 등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전북 | “더불어함께 나누는 삶” 행사 진행



전북지부는 지난 6월 1일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동물원에서 “더불어함께 나누는 삶”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른 더위 탓에 무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체험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천연비누 만드는 법, 풍경 만드는 법을 설명하며 진행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 함께 나누는 실천 활동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나누는 삶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으며, 여성노조가 가져나가야 할 새로운 가치와 행복을 찾는 뜻 깊은 행사였다.

| 울산 | 교육공무직 조례 7월 1일부터 시행, 단체교섭 승리하자!



지난 5월 10일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이 울산시의회 교육위 통과, 21일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되어, 7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 조례가 보수교육감중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례이다. 이에 발맞춰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6월 5일부터 단체교섭절차합의를 위한 예비교섭을 진행했으며, 7월 17일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열심히 투쟁하여 얻은 성과이다.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체계,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단체교섭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투쟁으로써 쟁취해 나갑시다.

학비연대, 5월 29일 교육부와 상견례, 지금은 실무교섭 중



학비연대가 지난 5월 29일 교육부와 상견례를 하고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학비연대는 호봉제 실시, 급식비 월13만원, 명절휴가비 연 120%, 상여금 100%,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지급 등 <임금 5대 요구안>을 제시, 교섭 중에 있다.

| 인천 |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 〈평등한 일터 여성의 힘으로〉 연극무대 올려



“나는 때리면 돌아가는 팽이라고, 돌릴수록 쥐어짜지는 팽래라고...”

우리들의 당당한 삶을 이야기한 연극 ‘평등한 일터 여성의 힘으로’가 7월 3일 여성대회 식전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로 대본을 만들고, 조합원들이 직접 출연하여 일터에서 벌어지는 관리자들의 갈등, 그리고 부당함에 맞서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수노조문제, 우리들의 당당한 요구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극 안에 잘 녹여내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연극은 극단 <오름>의 이해란 대표가 연출을 맡고, 인천지부 소속 법원분회, 인천대분회, 인하대분회, 인하전문대분회 10명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것이다.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이야기! 대본을 외우고, 대사연습을 하고, 동선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주 2회 퇴근 후 진행된 연극연습은 조금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무대위에서 조합원들이 모습은 빛났다. 특히 딸들이 일어나라로 마무리된 감동적인 피날레는 극을 준비한 배우와 스태프들은 물론 객석에 앉은 관객들에게도 몽글몽글 감동을 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 경남 | 급식 조합원 모임 및 조합원 방문



경남지부는 지난 5월 11일 대의원대회 이후 새로운 지부장 및 이하 간부를 선출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경남지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조합원 방문을 시작했다. 5월 27일 사화초등학교 급식 모임을 시작으로 6월 4일 고성초, 거류초, 삼산초 급식 조합원들과, 6월 14일 신방초 급식조합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호봉제, 공무직 쟁취를 위한 사행시 짓기와 서로의 어려운 점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조합원이 한분씩 있는 고성중학교 외 7개 학교를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여성노조 경남지부는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으로서 한걸음 걸어갈 것을 약속드렸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성노조 경남지부를 응원하고 믿어주는 조합원 여러분이 있기에 든든하였다.

| 대구경북 |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여성노동자 행동의 날!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6월 4일 2.28공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여성노동자 행동의 날”을 진행하였다. 1부는 시민 선전전을 통해 최저임금의 문제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알렸고, 시민 참여로 “내가 바라는 2014년 최저임금액”을 진행하였다. 2부는 경대미화원분회를 중심으로 생활관분회, 학교지회 조합원들과 여성단체들이 모여,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비정규직(청소용역) 노동자, 돌봄노동자, 장애여성노동자, 이주여성노동자등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모여, 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임금으로 올리자며 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면 강제추방등을 당한다”

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날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으로 인상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 서울 | 서강대 분회 밥값투쟁 승리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가 식대를 7만원으로 인상하는 밥값 투쟁에 승리했다. 서강대 분회 조합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주먹밥데이, 정문 앞 피켓시위 등을 진행하며 월 1만원으로 되어있는 식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5월 9일, 식대를 7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조인식을 학교와 가졌다. 서강대 분회는 보고대회를 갖고 함께 한 조합원, 학생들과 함께 떡나눔을 하며 투쟁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6.22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다녀와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호봉제를 쟁취하자
비정규직철폐 단결투쟁, 결사투쟁

아이 낳고 기른다고 한 번도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을 위해 참여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응원만 보내다 이번 6월 22일 나를 향한 도전이었어요.

나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좋아지지 않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노조 문을 두드렸어요. 6월 22일 함께하고 싶다고, 미약한 목소리지만 보태고 싶은 맘이 나도 모르게 싹트고 있었나봐요.

서울에 도착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학교회계직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이 모여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기를 고스란히 담아오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회계직 선생님들의 열정과 열기에 놀라고 감동하면서 같이 목소리 높이며 외치고 서울역까지 행진하면서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렁찬 함성에 힘이 불끈!

더 이상 못 참겠다, 호봉제를 쟁취하자. 비정규직철폐 단결투쟁, 결사투쟁

교육공무직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비정규직철폐 단결투쟁, 결사투쟁

푹푹찌고 습도 높은 날씨에 도로 옆에서 매연을 마시며 집회를 했지만 힘든 것보다 즐거웠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 높여 호봉제 도입과 공무직법 통과를 함께 외친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마음이나마 저 자리에 참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랬듯이...

집에 도착해서 씻고 앉아 있으려니 토요일 하루를 알차고 보람되게 보냈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뿌듯했네요. 6월 22일 학교회계직들의 호봉제, 교육공무직법 제정 외침을 교육부가 정부가 온전하게 들었다면 꼭!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 경남지부 이진숙 조합원

Wee class 전문상담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호봉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으로서 첨단중학교에서 Wee class 전문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류만숙입니다. 6월 22일 호봉제 쟁취와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한 전국 결의 상경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맘속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무기직도 되지 않았는데 호봉제고 뭐고 교육공무직이 뭐냐고!’

맞는 말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직종 중에 8월 말로 해고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내년에 어찌될지 모르는 우리 Wee class 전문상담사 직종은 집회의 화두가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호봉제가 실시되고 교육공무직법이 제정되면 우리 직종도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에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또 품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종도 무기계약 직종이 되어 사용주가 교육감이며 교육공무직법도 제정되고 호봉제 실시하여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광주전남지부 류만숙 조합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결정,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기대 못미쳐

여성노조는 7월 5일,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외면한 2014년 최저임금 결정, 당사자의 최저임금 결정권이 커져야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이번 최저임금 5,210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350원 인상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이 금액이 여전히 저임금노동자, 여성노동자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인상액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울 뿐이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는가? 이는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의 주 당사자인 여성노조를 비롯해 알바연대,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등 조합원과 회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으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중 64%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를 기만하였고 청년들을 좌절시켰으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중 94%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최저임금이 좀 더 현실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당사자가 참여

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에 맞춰 현실성 있게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성노조는 저임금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폭우가 내리는 7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여성노조,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등 40여개 단체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7~8월 대정부 투쟁계획

교육부가 6월로 예정했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 대책 발표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연기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교육공무직 법안 심사 또한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호봉제 실시와 처우개선대책 마련이 미뤄진 것을 정부의 책임방기로 보고, 교육부가 7월 중으로 호봉제를 포함한 내실 있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 7~8월 대정부투쟁계획

- 교육부 앞 촛불집회 / 간부연가투쟁 / 교육부, 청와대 농성 및 1인 시위 지속
- 광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집회 및 1인 시위 지속 / 총파업

■ 인터넷 시위(글쓰기)

- 주제
 - 일할수록 극심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호봉제 실시가 필요함
 - 학교회계직이라는 이름보다 당당한 일꾼으로서 '교육공무직' 제정 필요
- 글쓸 곳
 - 청와대홈페이지 → 국민소통광장 → '자유게시판'에 글쓰기
<http://www.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list.php>
 - 교육부홈페이지 → 국민참여와 민원 → 대화의창 → '이런주제저런생각'에 글쓰기
http://www.moe.go.kr/web/1050/talkboard/list.do?catid=ms_212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제정! 7월 9일(화),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여러분과 함께 교육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여성노조 투쟁의 달, 6월 공모전이벤트 수상작 발표

많은 조합원분들의 응모로 <호봉제공무직 3행시>와 <최저임금오구일공 4행시> 공모가 무사히 마감되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작품들이 많아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응모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하며 수상하신 조합원님 축하드립니다.

<호봉제공무직 3행시> 공모 수상작

★ 여당당총수상(대상) - 경기지부 이지향 조합원
호봉제를 시행하라!
봉이내 비정규직이!
제도를 바꿔라!

★ 왔다우리불날상 - 인천지부 최애영 조합원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 건 박근혜대통령 보시오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고 말하진 않으시겠조?
직접고용은 교육감, 호봉제 도입으로 고용안정과 학교비정규직들이 마음놓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학교공무직입니다

★ 내이름공무직상 - 경남지부 월포초 조합원 일동
공공기관 학교에서 우리는 전문가다
무식한 언어폭력 보조라 부르시마
직접고용 공무직 교육가족 인정해라

★ 공교육바로세움상 - 경남지부 신방초 조합원 일동
공공기관 학교 급식소에서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직접고용은 기본 아이가?

★ 호봉제화니핀상 - 전북지부 장유미 조합원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봉처럼 대하는 주위의 사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곳곳하게) 제 할일 열심히 합니다
제발 호봉제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기도하면서)

<최저임금오구일공 4행시> 공모 수상작

★ 오구일공승리상(대상) - 인천지부 인하대 4호관 조합원 일동
최고로 치솟고 있는 물가
저임금이 웬말이나
임금 좀 팍팍 올려
금년에는 아껴 쓰고 살자

★ 따끈한밥상 - 경기지부 김미경 조합원
최소한의 인간이 받을 돈을 원하는데
저렇게도 판전을 피우시나
임금님께서 반대하나?
금일은 한 번 해봐!

★ 힘불끈투쟁너끈상 - 인천지부 인하대 5서관 조합원 일동
(머리어깨무릎발 노가바)
최저임금 올려라 올려라 최저임금 올려라 올려라
최저임금 오구일공 최저임금 올려라 올려라

★ 공한쪽나눔상 - 경남지부 최운선 조합원
오르다만 최저임금 4860원
구차하게 이번에는 얼마를 인상할래?
일천오십원 인상하면 5910원 되네
공정한 시급 최저임금 5910원

★ 팍팍울려상 - 서울지부 서강대 포스코관 조합원 일동
오만가지 물가는 다 오르는데
구질구질하게 주네 못주네 하지말고
일한 댓가라도 줘라
공정하게

★ 깨알웃음상(특별상) - 인천지부 인하대 4호관 조합원 일동
오잉!
구라 아니징
일 열심히 했는데
공갈빵이구만